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2007년 3월 28일(수)

15th

■ 발행인: 이재식 ■ 편집인: 최광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여백(02-2279-9631)

2007년 전국대의원대회...당기순이익은 늘지만 조합원의 고통은 더욱 커져 “주주가치에 올인하는 배당정책 바뀌어야 한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모인 대의원 500여명이 지리산수련관에 입소한 가운데 대의원대회가 개최됐다. 노동조합은 ▲2006년 사업보고 및 결산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 ▲규약개정

등 3개 안건을 상정했다. <관련기사3면> 2007년 사업계획을 통해 노동조합은 기초를 조합원의 가치를 실현하는 노동조합으로 설정하고 ▲실질임금 확보 ▲완전복지 실현 ▲조직강화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기 순이익이 늘고 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끊임없이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배당정책을 철회하고 공정한 분배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이 자기혁신을 통해 조합원을 견인해야 한다면서 조직강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아래 단체교섭, 조직강화사업, 정책사업, 복지사업, 대외 및 통일연대사업, 국제연대사업, 교육홍보사업 등의 방향과 계획을 제안했다.

한편, 대의원들은 지재식위원장과 대화 시간에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한 대의원은 IT서포터스가 1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문의 진상을 파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지재식위원장은 아직 들은 바 없으면서 노동조합은 현재의 IT서포터스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IT서포터스가 확대된다면 신규인력의 충원을 통해 보충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기량강화를 위해 회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00시간의 교육이수에 합쳐야 하는 조합원이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이에 위

원장은 노동조합이 교육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한 결과 KT의 경우 평균을 약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다른 회사의 경우 평균적으로 120시간 정도 이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공무원이 100시간, 삼성이 125시간, 유한켄벌리 300시간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 100시간에 들어가 있지 않은 평가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원직의 전환직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올해 임단협 요구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번에 지원직의 전환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통신회사 등도 KT와 같이 매우 다양한 직군직렬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합의된 직군직렬 통폐합이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과소평가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KT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

우리사주 배당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 래-

- 지급일자 : 2007.03.30 (금)
- 지급주식 : 조합원계정 및 조합계정 주식
- 지급율 : 주당 2,000원
- 지급계좌 : 급여 별도계좌

※ 단 사주압류자 및 미상환퇴직자 부분 상환 처리 대상자는 지급보류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조합간부 직무정지해제 등 논의

노동조합은 26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조합간부 직무정지 해제, 향후 추진 사업 등을 논의했다.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집회 불참 등으로 지난해 11월 28일을 기해 직무 정지된 조합간부 5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위원장의 승인을 얻었다. 다만, 승진전환직 포기 결의를 어긴 조합간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2007년 노사 대토론회 계획도 공유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임단협 시기는 노동조합이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하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임금 및 단체협약(안) 마련에 만전의 준비를 해 둘 것”을 주문했다.

1인당 개인빚 1400만 원 육박 개인부채 671조 원 11.6% ↑...비금융부채도 급증

지난해 1인당 개인 빚이 14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자산에 비해 금융부채의 증가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자금순환통행(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개인부채 잔액은 총 671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11.6%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4837만7000명)로 나눠보면 1인당 빚은 1387만 원에 달한다. 이는 6월말의 1294만 원에 비해 100만 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특히 지난해에는 금융자산보다 부채의 증가속도가 더 빨라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 부문의 금융자산 잔액은 1511조1000억 원으로 금융부채 잔액의 2.25배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02년 2.15배, 2003년 2.22배, 2004년 2.27배, 2005년 2.31배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뒷걸음질 쳤다. 즉 2005년까지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빠르게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비금융부채(기업, 개인, 정부) 부채도 전년대비 213조9000억 원(1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비금융부채 부채를 명목 GNI로 나눈 비율은 2.04배로 2002년 1.84배, 2003년 1.83배, 2004년 1.78배, 2005년 1.87배에 비해 큰 폭으로 올라갔다. 이는 미국의 2.13배, 일본의 3.33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1.91배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1997년에는 통계 산출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금융자산잔액을 명목 GNI로 나눈 금융연관비율은 8.18배로 전년말의 7.68배에 비해 높아졌지만 미국의 9.73배, 일본의 12.23배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금융연관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규모도 커졌다는 의미다.

2007년 전국대의원대회 대회사 임금인상위해 역량 집중할 것

2007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길 오신 대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의원동지 여러분!

지난 공기업시절 경영진은 민영화만 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공언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에게 주식까지 떠넘겨 팔았습니다. 그런데 민영화 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회사의 이익이 많아졌고 주주 배당은 늘었지만 오히려 직원의 수는 반 토막이 났고 노동강도는 두 배 세 배가 됐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형평성을 잃어버린 분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사용자들이 알아서 우리의 임금을 인상해준 적이 있습니까? 민영화 되고부터는 더더욱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시절에 비해 몇 배의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언제나 위기라고 조합원들을 목 죄어 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KT처럼 많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되돌려주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랬던 기업들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겁데기만 남고 말았습니다. KT가 겁데기만 남은 기업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용자들은 “고통분담”이라는 말로 직원들을 속이면서 주주들에게는 매년 순이익의 50% 이상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고통을 함께 하고 좋은 결과를 낼

을 때는 함께 나누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과는 주주의 몫이었지 고통을 나누는 직원들의 몫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통분담이라면 더 이상 노동조합은 고통분담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노사신뢰를 믿었습니다. 또한 신뢰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동조합이 먼저 실천했습니다. 지난해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임금동결에 합의했고 사외이사 진출투쟁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제 경영진들이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의원동지 여러분!

KT가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투자입니다. 통신서비스는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 시설에 대한

투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저는 경영진들이 말하는 주주가치 제고를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KT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주체 즉 고객과 주주, 직원의 가치가 공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제고되어야만 합니다. 올해 저는 임금인상과 함께 이러한 공정한 가치를 찾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조합원들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조합간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조합간부의 승진 전환직 포기결의는 조합간부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 약속을 지키는 조합간부, 약속을 지키는 노동조합임을 보여주

었습니다. 2007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굳은 결의를 보여줍니다.

대의원동지 여러분!

우리에게 결실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입니다. 올해 결실을 맺기 위한 씨앗을 뿌립시다. 조합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단결 또 단결합시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22일
KT노동조합 위원장 이재식

퇴직사원 장제용품 지급계획

노동조합은 그동안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꾸준히 퇴직자에 대한 실제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 요구함에 따라, 그 결실로 노동조합은 퇴직사원 장제용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마련했다.

-아 래-

■ 지급 기준

가. 대 상 : KT퇴직사원(정규직으로 퇴사한 임·직원)

나. 지급범위 : 대상자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다. 지급내용 : 건당 300인용

라. 지급기관 : 장례지인근 KT(지사/지점)

마. 청구 및 지급절차 예시

① 본인 → KT(지사/지점)청구 → 방문수령

② 본인 → 동우회통보 → KT(지사/지점)청구 → 방문수령

■ 시행일 : 2007.04.01

사업에는 긍정적이지만 조합원에 상품판매 압박이 심해질 가능성도 커

정보통신로드맵... 결합판매 7월부터 시행



정보통신부는 3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통신시장에 활력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대해 요금할인을 허용키로 했다.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이 10% 내인 경우 요금 적정성 심사시 간소한 약식절차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나, 경쟁사업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에 대한 동등접근성 심사는 예외없이 엄격히 실시한다. 결합판매 관련 규정 마련은 3월중에 마무리되나, 통신사업자들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시행은 금년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화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화로의 번호이동성 시행을 위한 규정은 금년 3/4분기까지 마련하되, 관련 사업자들의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되며, 늦어도 2008년중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도 단일역무로 통합된다. 이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되, 실질적인 역무통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도 병행 추진하여 3/4분기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행 보조금규제는 예정대로 2008년 3월에 일몰된다. 전면적인 보조금 자유화에 대비하여, 단말기별 보조금 차등지급 등 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완화방안도 시행된다. All-IP(IP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상호접속 대가 산정, 인터넷망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 향후 일반규제원칙 마련을 위해서 정보통신부는 일단 현안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하되, 2007년 관련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국제적 논의동향 검토, 개별사례 조사, 분석 등 본격적 검토에 착수키로 하였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허용과 역무통합 등에 따른 KT, SKT 등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시장경쟁촉진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쟁상황 변화, 요금인하와 통신투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매 의무화 등의 도매규제를 도입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통신규제 로드맵 주요내용

통신역무 분류체계 개선
 • 기간통신역무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단일역무로 통합
 - 새로운 기간통신역무 제공시 추가적인 사업허가가 불필요하게 되어 새로운 상품개발과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되, 국회일정 등을 고려 실질적 역무통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 추진

결합판매 규제완화
 • 시장자유적 요금인하와 소비자요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
 • 지배적 사업자의 인가 대상 서비스(KT 시내전화, 초고속, SKT 이동전화)에 대해 결합판매와 요금할인 허용(규제개정 1/4분기, 결합판매 시행 7.1)
 • 요금적정성과 다른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 여부를 검토

- 할인율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시 약식 절차 적용
인터넷전화 활성화
 • 유선분야 경쟁상황 개선과 결합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추진
 • 이용자가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터넷전화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규제개정 3/4분기)

보조금규제 일몰에 대비한 규제완화
 • 보조금규제는 예정대로 '08년 3월 일몰시키고 전면적인 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적 규제완화 추진
 • 보조금지급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
 - 사업자 판단으로 단말기별로 보조금 차등지급 허용
 - 지역별, 대리점별로 보조금 지급규모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시장현실을 고려, 일정금액 범위내 보조금 편차 허용
 • 관련내용은 1/4분기 중 확정하고, 이용약관 신고일 30일후 시행

초고속인터넷요금 신고제 전환 여부 확정
 • KT 초고속인터넷요금 신고제 전환 여부에 대해 3/4분기 중 결정
 - KT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통신망 투자 추이, 결합판매 시행효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

별정통신사업 제도 개선
 •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사업자의 실질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

•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통신망 구성 등을 위한 설비제공 요청 자격을 부여하되 이용약관 신고,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분담, 회계정리 등의 의무를 부여
 *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유인을 고려, 통신망 이용대기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게만 원가기반 요율 적용

■추진 일정

■2007년
 • 허가단위를 통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1/4분기(개정 3/4분기)
 • 결합판매 허용을 위한 규정 마련 : 1/4분기(시행 7월)
 • 단말기 보조금 규제완화 : 2/4분기
 • 시내전화번호의 인터넷전화로의 번호이동규정 마련 : 3/4분기
 • 도매규제 도입 전제조건 및 법률개정 시안 마련 : 4/4분기

■2008년~2009년
 ○ 결합 판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등 로드맵 주요과제 시행에 따른 통신시장 변화를 분석하고 도매규제 도입 여부 등을 확정

■중장기 검토 과제
 • All-IP 환경에서의 상호접속 대가 산정, 인터넷망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은 일단 현안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
 • 일반규제원칙 마련은 국제적 논의동향 검토, 개별사례 추적 등이 필요하므로 2007년 관련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본격 검토

정보통신로드맵에 따른 업계의 파장 불붙는 결합상품 경쟁예고

2007년 벽두부터 통신업계의 결합상품 경쟁이 불붙기 시작, 본격적인 '통신대전'이 예고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 허용으로 영상(방송)과 음성(전화), 데이터(인터넷) 등 3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Triple Play Service)가 본격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결합상품요금인하 경쟁

정통부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도 통신상품을 결합판매할 때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시장의 비지배적 사업자만 결합상품을 할인 판매할 수 있고, KT·SK텔레콤 등 지배적 사업자는 요금할인이 불가능했다. 현재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시장 2위인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하나TV(인터넷TV) 등 3가지 서비스를 묶은 '하나세트' 상품을 판매하면서 요금을 최대 2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정통부 양한정 팀장은 "KT·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요금할인율이 10% 이내면 간단한 심사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금할인율이 10% 이상이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결합상품은 자기회사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KT는 오는 7월부터 자사의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메가패스)' '인터넷TV(메가패스TV)' '휴대인터넷(와이브로)'에 자회사인 KTF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

을 다양하게 결합, 요금을 10% 할인해서 판매할 계획이다.

SK텔레콤도 '이동통신 서비스'와 자회사인 TU미디어의 '위성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결합한 상품을 준비 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의 이동통신과 외부 기업의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유선전화 등을 결합한 상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KT와 SK텔레콤이 요금을 낮춘 결합상품을 본격 출시하면, 통신시장에서 요금인하 경쟁이 벌어져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내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에서도 그대로 사용

요금에 저렴한 인터넷전화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정통부는 내년부터 인터넷전화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규정을 올 3분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올 상반기 안에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선택하는 휴대전화의 종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휴대폰 보조금이 완전 자유화돼, 소비자가 무료로 휴대폰을 얻는 '공짜폰'이 늘어나는 등 이동통신 업체 간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 7월부터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가 허용된 가운데 통신업계가 물밑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표면적으로는 KT가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SK텔레콤

과 LG텔레콤은 전략 노출을 꺼리면서 뒤늦게는 형국이다.

▶ KT, 결합상품 '과상공제' 예고 = KT와 KTF는 정보통신부가 올 4월부터 결합상품 출시를 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쟁업체보다 한발 앞서 결합상품 출시를 준비해왔다.

KT그룹은 KT 메가패스 및 와이브로 서비스와 KTF 이동전화 간의 결합을 추진 중이다. 가장 유력시되는 결합상품은 KT의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와 KTF의 HSDPA(고속하향케이트 접속)를 결합하는 형태다. KT그룹은 관련 상품의 경우 올 3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요금할인율 등은 현재 검토 중이다. 또 와이브로와 이동통신이 지원되는 결합 단말기를 통한 결합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결합상품 형태는 와이브로+HSDPA, 와이브로+CDMA(EV-DO) 등 2가지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KTF는 와이브로와 HSDPA 기능을 모두 탑재한 USB 형태의 무선데이터 모뎀을 2분기내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어 와이브로와 EV-DO 기능을 모두 탑재한 UMPC(울트라 모바일 PC), 스마트폰도 후속 출시할 계획이다.

▶ SKT, LGT '정중동(靜中動)' = SKT와 LGT는 결합상품을 놓고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SKT는 우선 결합판매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부역량을 활용한 자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필요하면 외부사업자와의 협력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KT는 내달 중 HSDPA와 와이브로가 결

합한 USB모뎀 단말기를 출시한 뒤 이르면 3분기께 이종역무 간 결합상품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하나로텔레콤과 SKT가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간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이 최근 내년부터 이동전화 재판매를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SKT와 LGT 등 경쟁사들이 대체로 KT그룹이 내놓는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과 상품 구성 등을 먼저 보고 나서 구체적인 대응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내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 KT는 이들 상품에 대한 결합판매 상품을 내놓을 경우 후발사업자한테도 '동등접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LGT는 정통부가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대한 영향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LGT는 역무, 결합판매, 단말기 보조금 등 사안별로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는 LGT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LG와 필름 및 LG데이콤 등과 함께 이르면 9월을 전후로 결합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무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KT와 SKT의 결합상품 구성 여부와 요금할인율이 결합상품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올 3분기 KT의 초고속 인터넷 인가대상 해제 여부도 결합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개방은 행위금지 규정 신설로 해결... 자회사 분리 문제는 시행령에 반영

방송위, IPTV 도입 정책방안 최종 확정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프로토콜TV(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과 방송법 개정의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정책방안은 7일 방송위 방통구 조개편단이 개최한 'IPTV 도입과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미 발표됐지만 방송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방송법 개정의견안으로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의견안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윤추위는 다음달 2일과 6일 두차례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부가 21일 제출한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을 놓고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IPTV 도입 논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던 네트워크 개방 문제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와 관로, 통신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선방송사업자의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반영됐다. 이는 '트리플플레이서비스'(방송, 전화, 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를 보장

하는 차원으로 유료방송사업자의 회계정리 기준 마련 근거도 신설됐다. 또 다른 쟁점인 거대 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진입 문제는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명문화하지 않고 시행령의 방송사업 지배범위를 설정하거나 사업자 공모 정책으로 해결키로 했다.

방송위 오용수 팀장은 "KT가 IPTV 진입시 별도법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시행령에 반영이 안되더라도 사업자 허가추진 과정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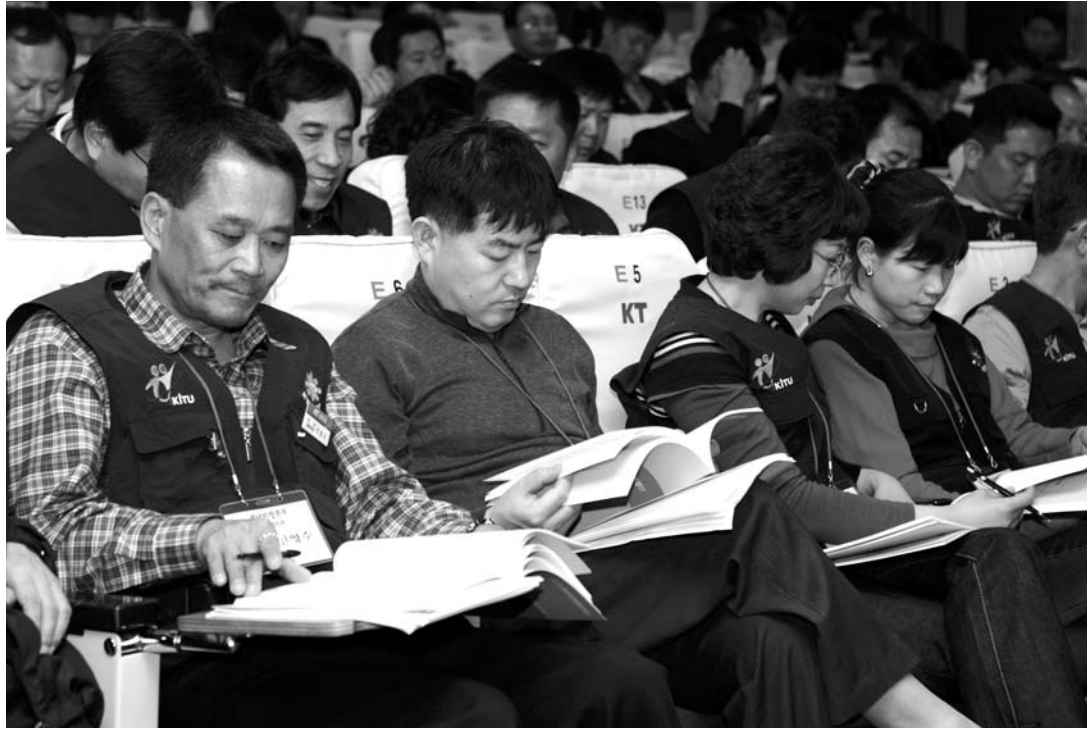
아울러 논란이 됐던 IPTV의 사업권역은 현재 케이블TV와 같이 지역면허 체계로 일원화키로 했다. 이는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전국 사업권으로 면허를 부여할 경우 사업자가 대도시와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수익이 높은 지역에 집중될 경우 지역균형발전에서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송위는 디지털방송 전환과 전송망 고도화, 네트워크 정책 정비 정도를 고려해 2012년까지 사업자 면허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07년 전국대의원대회 이모저모

“임단협승리로 조합원의 가치를 인정받자”



3.21

지리산 수련관에 전국 400여명의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입소식이 열렸다.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입소인사를 통해 "2007년은 대내외적인 큰 파도가 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조직강화를 위해 현장대장정 천명하고 KT노조대의원대회에 첫번째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는 IP-TV 등 노동조합이 대응해야 할 일들도 있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의원 동지들이 뜨겁게 결의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의 교육에서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활동상황을 설명했다. 이석행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형식을 따지지 않고 정부와 경제인들을 만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민주노총은 무엇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개입해가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한국산업에 대한 고민, 고용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면서 이제 영등포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민주노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대장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를 결집하고 이를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만나서 요구할 것이다. 그런 후 조합원들과 과업을 하더라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석행 집행부를 탄생시킨 KT노동조합이 3년의 임기를 함께 책임지자면서 ▲조합간부들의 적극적인 지역연대 ▲내가 바로 민주노총이라는 생각으로 비정규직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투쟁 ▲적극적인 한미FTA 저지투쟁 ▲열린마음으로 동참하는 현장대장정 등을 주문했다.

저녁식사를 마친 400여 대의원과 함께 대회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재식위원장은 노동조합 조직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KT노동조합이 걸음으로 보기에는 거대규모의 조합이지만 내부는 모래알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조직 실정에 대한 속내를 비추었다. 그러면서 최소한 중앙의 지침이 지부와 조합원에게 전달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돼야 한다면서 조합간부들이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쓴소리를 할 수 있지만 사측과 있을 때만큼은 노동조합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PTV와 정보통신로 드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통방융합추진위원회의 전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자회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IPTV자회사 분리방안은 사실상 초고속 인터넷을 분리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KT의 분리과 이익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한해 IPTV가 노동조합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크게 결합상품 판매 허용과 통신역무 통합이 KT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이면에는 상품판매 등을 둘러싼 조합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의 질문과 위원장의 답변이 계속됐다. 대의원들은 ▲IT서포터즈 확대 소문에 대한 진상 ▲기량강화 교육 문제 ▲건강검진 항목 확대 ▲지원직의 전환직 문제 등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지재식위원장은 IT서포터즈 문제에 대해서 노동

조합은 현재의 IT서포터즈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IT서포터즈 인원은 신규인력 충원을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직의 전환직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시킬 것이라면서 현재 1500여명이 되는 지원직 전원을 전환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22

개막행사가 열렸다.

지재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조합이 그동안 노사신뢰를 위해 임금동결과 사외이사 진출투쟁 유보를 하면서 실천해왔지만 경영진들은 조합원들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이룬 성과는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다"면서 "올해는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공정한 가치를 찾는 일에 노동조합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저를 세우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며 여러분과 소외된 계층이 바로 민주노총이다"면서 "결의는 잘하고 실천하지 않는 민주노총이 아니라 결의하면 힘있게 실천하는 민주노총을 만들자"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장 대장정을 떠난다"면서 "지역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 마다 내가 바로 민주노총이라는 생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IT연맹 박흥식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에서 70% 이상이 이미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결의했다"면서 "KT노동조합도 조직변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졸속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함께 투쟁해달라"고 요청했다.

KT남중수 사장은 축사를 통해 "청춘을 KT에서 보내면서 애정이 있다"며 "제가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떠난 뒤에도 KT와 우리 가족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고용안정과 회사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훌륭하게 극복해왔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조합원과 우수지부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표창자는 다음과 같다.

- 우수지부
 - ▲강북지방본부 신촌지부(지부장=전영복) ▲강남지방본부 이천지부(지부장=이문연) ▲서부지방본부 구로지부(지부장=임범기) ▲부산지방본부 동부산지부(지부장=이기학) ▲대구지방본부 월배지부(지부장=안효정) ▲본산지방본부 BCN본부지부(지부장=신희만) ▲전남지방본부 광양지부(지부장=신행규) ▲전북지방본부 군산지부(지부장=박규만) ▲충남지방본부 서천지부(지부장=김종래) ▲충북지방본부 청주지부(지부장=김석운) ▲강원지방본부 동해지부(지부장=우창기)
- 우수조합원
 - ▲노영환(강북지방본부 동두천지부) ▲안길운(강북지방본부 서울북부네트워크센터지부) ▲김병수(강남지방본부 성남지부) ▲허창남(강남지방본부 남양분회) ▲김시훈(서부지방본부 안산지부) ▲이인규(서부지방본부 인천서부네트워크센터지부) ▲이순철(부산지방본부 영도지부) ▲박상열(대구지방본부 동대구지부) ▲권승태(본산지방본부 충청권고객센터지부) ▲김상현(본산지방본부 신사업부문지부) ▲임환중(전남지방본부 광주지부) ▲이호연(충남지방본부 충남네트워크센터지부) ▲고재만(제주지방본부 신제주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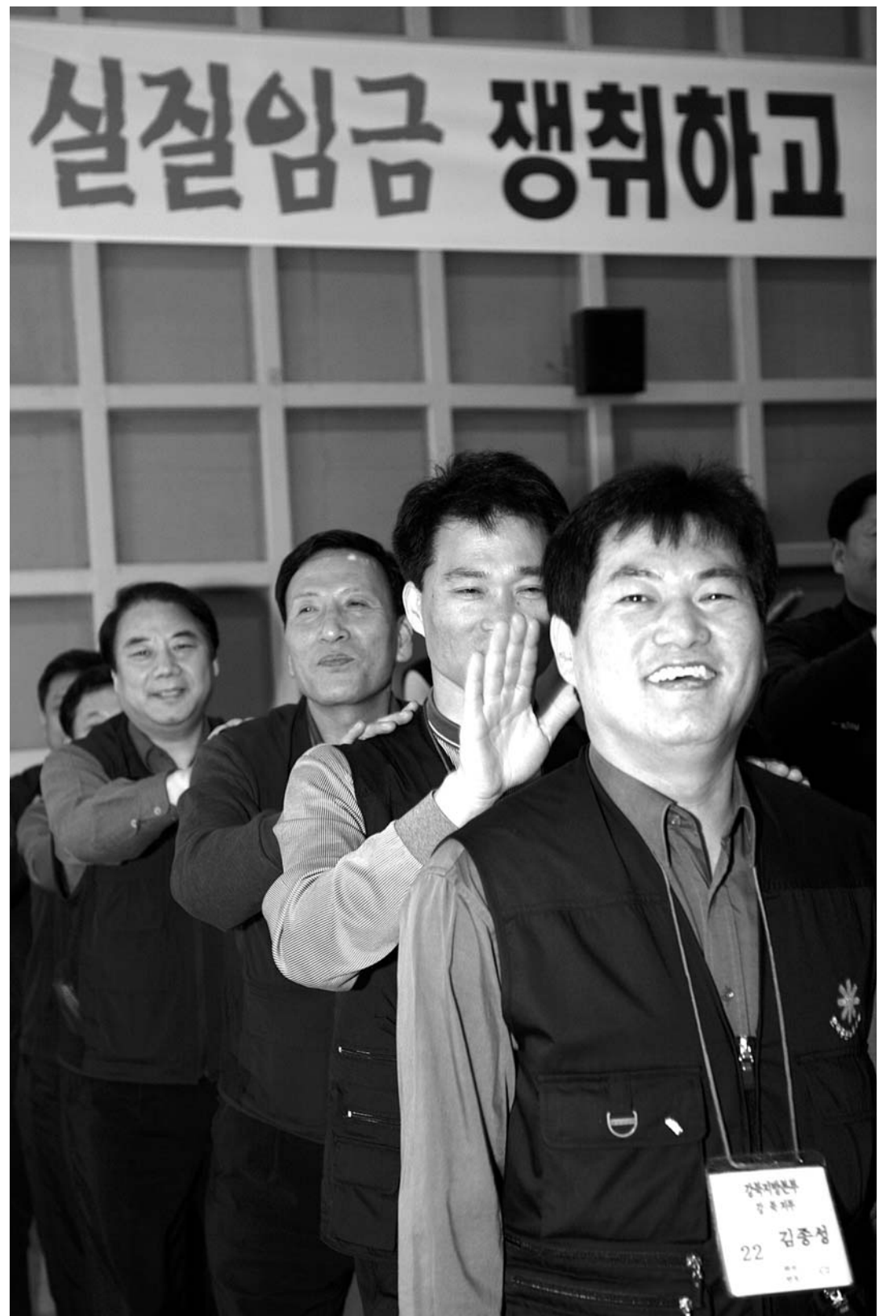


개막 행사를 끝내고 2007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본회의가 시작됐다. 본회의에서는 ▲2006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승인 ▲규약개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전국대의원들은 사업계획을 심의하면서 임금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지재식위원장 임금요구안과 관련해 기본급 인상과 함께 성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3호 안건인 규약개정은 투표자 402명, 찬성 262명, 반대140으로 규약개정을 위한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한편, 전국대의원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임단협 승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강화할 것 ▲200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 투쟁할 것 ▲사측의 과도한 배당정책을 반대하며 공정한 조합원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투쟁할 것 ▲사측의 지배개입을 차단할 것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5개월 간의 현장대장정 출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부터 '현장대장정'에 돌입했다. 현장대장정은 3월 26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5개월 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대장정은 이석행 위원장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이석행 위원장은 당선 첫 기자회견에서 "6개월에 걸친 현장대장정을 통해 조합원과 집행부의 관계를 신뢰와 단결의 관계로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석행 위원장의 현장대장정은 26일 새벽 4시 30분 인천 동암역 새벽인력 시장에서 시작되었다. 민주노총은 현장대장정이 △지도부-현장간부-현장조합원 상호 간의 신뢰와 결집력을 강

화 △총괄적인 현장조직력강화 전망과 방향을 제시해 공감대 형성 △당면 현안 대해 조합원들과 교감해 해법 마련 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현장대장정은 각 지역본부별로 5박 6일을 기준으로 하며, 인천 제주(4/2) 경북 부산(4/16) 대구 울산(4/28) 광주 경남(5/14) 충남 충북(6/4) 강원 전북(6/18) 대전 서울(7/9) 경기 전남(7/16) 순으로 진행된다.

일정은 아침 7시 경 출근선전전을 시작으로 저녁 10시까지 백백하게 짜여져 있다. 현장대장정의 첫 지역은 인천에서는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콜드약기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우

자동차판매지회, 현대제철, 삼일여객, 삼환운수, 인천공항비정규직 노동자들 등을 만나간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현장대장정을 통해 '단결과 연대'를 주요 의제로 던졌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정규직의 단결을 위한 민주노총 △노동운동의 단결을 위한 민주노총을 큰 의제로 놓고 구체적으로는 비정규 50억 기금 모금을 완료하고,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 교육주체를 정비해 현장조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 봉사활동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TF노조, 임현재 신임 집행부 당선

KTF노동조합 제3대 임원 선거에서 임현재(위원장)-박철성(수석부위원장)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KTF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당선인 공고를 통해 노동조합 제3대 임원에 임현재-박철성 후보가 당선 확정되었음을 공표하였다. 지난 3월 8일 선거에서 전체 조합원 1,685명 중 1,527명이 참가, 90.6%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기호 1번 임현재-박철성 후보는 960표 62.9% 득표율로 562표 36.8%에 그친 기호 2번 서문삼-김영우 후보에 앞섰다.

이번 선거는 90%라는 투표율이 보여주듯 노동조합에 대한 전체 조합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서, 임현재 차기 집행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2007년 제1차 중앙위원회 열려

지난 9일 성원미달로 유회된 민주노총 2007년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3월 15일 오후 2시, 총성원 1%명중 116명이 참석해 여의도에서 열렸다. 본 조합의 중앙위원회가 참석한 첫 중앙위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된 후 첫 중앙위를 성사시키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유회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지난 9일 중앙위 유회 건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위원장은 "한미에 프티애이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연대단체 대표자들께서 천막도 없이 추운 거리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급박하게 변화하는 FTA협상 상황을 언급하고,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한미FTA저지투쟁을 새롭게 조직해 벌일 것을 상집에서 결의했다"는 내용과 함께 투쟁중심을 확고히 하

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이날 중앙위 회의에 제출된 주요 안건은 ▲07년 사업계획안 확정 건 ▲07년 사업예산 확정 건 ▲지도위원 위촉, 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관장, 사무차장, 실장 인준 및 관련 규정 개정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 등으로 통과됐다. 민주노총은 중앙위에 사업계획과 관련한 향후 3년간 사업방향과 과제를 제출했다. 총론으로는 ▲현장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는 민주노총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산별시대 민주노총 ▲민중과 함께하는 산별시대 민주노총 상을 내렸다. 사업목표와 방향에 있어서는 ▲현장조직력 강화로 강력한 투쟁력 구축 ▲비정규직화로 계급대표성 강화 ▲산별체제 확립과 산별시대 정착 ▲반전평화 자주통일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강화 ▲진보진영 총단결과 대선-총선 승리는 방향성을 마련했다.

폐회에 앞서 이석행 위원장은 현장대장정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월26일 인천을 시작으로 6개월간 현장대장정을 떠난다"며 "단순한 현장 순회나 아니라 조합원, 비정규직 노동자, 소외받는 민중들과 함께하는 대장정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장대장정 통해 흐트러진 조직력을 복원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힘이 있으면 대화와 교섭을 할 수 있고 총파업 투쟁도 되지만 없으면 객기가 된다"는 말로 현장조직력 복원 집중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석행 위원장의 "말뿐이 아니라 실천을 담보해 민주노총을 힘 있게 바로 세워 권력과 자본을 압도하자"는 비상한 결의와 함께 중앙위원들은 일제히 박수로 첫 중앙위 회의를 정리했다. 이날 4시 30분경 진행된 첫 중앙위는 오후 6시경 중앙위원 일동이 기립해 파업가를 부르며 폐회했다.

여성의 힘으로, 열어나라 평등세상! 제99주년 3·8여성의 날



99주년을 맞은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전국여성대회와 IT연맹이 주최한 여성간부수련회가 진행되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주최로 열린 이날 전국여성대회

대회에서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덕운 회장과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대회사를 통해 "현재 여성노동자 9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라며 "땅을 책임지는 것은 여성농민, 일을 책임지는 것은 여성노동자"라고 주장했다. 3.8여성대회 이후 경기도 용인으로 자리를 옮겨 IT연맹 여성간부수련회를 개최해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 양성간 차별철폐에 대한 의식 함양교육을 했다. 강의로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이주환 부원장의 '노조간부역량강화를 위한 인간관계 훈련'이 진행되며 대의원으로 선출된 여성간부와 여성국장들의 서툰 감정을 완화시켜 화기에해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노조 간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간부들은 이후의 뒷풀이까지 끝까지 사수하며 이후의 만남을 기약했다.

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의 참석으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했다. 사전집회로 여성비정규직투쟁사업장의 경과보고와 투쟁 발언이 이어졌으며 본

환절기 건강관리

모든 병이 그렇듯이 병에 걸린 후 치료하기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평소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균형이 있는 영양식을 섭취하여 양호한 전신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질병으로부터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며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되, 특히 양질의 단백질과 신선한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및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 손씻기 등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충분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 기관지 점막의 건조가 감기 바이러스의 침투를 쉽게 하므로 따뜻한 물과 음료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안의 온도는 20도, 습도는 50~60%를 유지시켜줍니다.
- 감기 예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 몸의 저항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 우선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너무 잦은 목욕이나 때 수건 사용을 피하며 목욕 후에는 충분한 보습이 필요합니다.
- 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심리적 부담도 피부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악화요인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안을 자주 환기시켜 쾌적한 온도 습도를 유지합니다.

환절기를 건강하게 나가기 위한 생활수칙

-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충분한 수면은 폐의 기능을 올려주고 신체 리듬을 원활하게 해 줍니다.
- 2) 음식은 자제해야 한다: 천고마비의 계절, 쉬 살이 찌는 반면 서늘한 날씨는 위장에 탈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 3) 따뜻한 음식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코 점막의 건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4) 가을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배, 은행, 무, 도라지 같은 계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한다: 환절기 적응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 5) 햇빛을 충분히 쬐다: 맑은 가을 햇빛은 기분을 상쾌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